

# 높은 학력 담장에 주저앉은 '출판인력'

## '출판과' 졸업생에 냉담... 근시안적 경영태도 바뀌어야

'출판은 사람사업'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종사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사업의 성패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쓸 만한 사람'을 찾는 출판사들의 인력수급 노력이 만만찮고 '쓸 만한 출판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출판교육기관도 적지 않은데, 어찌된 셈인지 출판계와 출판학계의 시선은 서로 엇갈려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출판계의 인력 수급 실태는 하나의 대답을 들려준다.

출판계의 인력수급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공채가 줄었다는

것이다. 많은 출판사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알음알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형식상 공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추천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나마 정기적인 공채를 실시하던 대형 출판사들도 공채 횟수나 인원을 줄이고 있다. 출판연구소가 91년에 펴낸 《출판업계 종사자 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출판업계 종사자 중 추천 및 발탁을 통해 입사한 경우가 전체의 80%. 최근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공채의 비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이다.

공채의 빈도가 줄어든 반면 응시자격은

'출판과' 졸업생에 대한 출판계의 반응은 냉담하기조차하다. '출판과' 교육에 대한 불신은 교육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문대라는 데 초점이 놓여있는 듯하다. 개별 출판사의 안위와 당장 이용에만 급급한 경영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출판 교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전문대 '출판과' 졸업생들이 진출하기엔 출판계 학력의 담장은 높지만 하다.

### 나의 의견

## 졸업생 이직률 날로 두드러져

### 어깨너머식 이론에 맡겨선 곤란

전영표 · 신구전문대 출판학과 교수

중견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산업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강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출판학과에서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컴퓨터 지식도 기초적인 것은 모두 익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심본 활용할 수 있느냐가 언제나 염려된다.

겨우 자리를 마련하여 추천한 졸업생이 몇 달 후 연락하려면 그만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 중에는 다른 출판사나 잡지사로 옮긴 경우도 있으나, 전공과는 아주 먼 곳으로 전직하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면서 다시 취업할 곳을 찾으려는 졸업생 등 이직현상은 날로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안다.

첫째는 더 나은 여건의 업체를 찾아 자의적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이고, 둘째로는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타의적으로 밀려난 경우이며, 셋째는 업무를 맡아 감당할 수가 없어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자의

반 타의반의 경우, 그밖에 자영이나 진학을 위해 스스로가 물러나온 경우 등으로 이유를 나열할 수가 있다.

출판계가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출판을 업으로 하겠다고 학과를 선택한 이들의 이직현상을 보면 교육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에 빠지게 된다. 출판인의 양성이 교육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여기서 업계나 학계는 인력 확보와 양성이란 두가지를 놓고 한번 더 방향조정을 해야만 할 것 같다. 출판의 이론과 실재를 공부한 이들이 출판계에 머물도록 새로운 길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책은 만들어져야 하고, 책을 만들자면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출판의 내일을 어깨너머식 이론에 맡겨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짧은 2년의 과정에서만 출판을 익힌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출판 관련업무에 종사해야만 할 것이다.

출판학과 출신들이 출판계에 머물 수 있는 업계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우리 출판산업의 밝은 앞날이 트일 것이라 확신한다. ❖

때 까다로워졌다. 최근 사원모집 광고를 낸 영어교재 출판사인 영어교육연구소의 경우 연구부는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를, 편집부는 관련학과 4년제 졸업 이상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제출서류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한다. 학습참고서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샘 출판사의 경우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

### 공채 줄고 자격요건 강화돼

최근 사원모집 공고를 낸 한길사의 경우 학력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경력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험자, 기획편집은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고, 이력서와 A4용지 4매 내외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어 만만치 않다. 민음사도 학력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48명의 직원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편집부는 대학원 졸업자가 많아 오히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드문 편.

문장력이나 독서력같은 고전적인 요건 외에 한두개 외국어는 독해가 가능해 원문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하고, 어학실력도 웬만큼 갖춰 해외업무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고 판단력이나 정보력, 섭외능력까지 갖추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최근 우리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응시자격이다.

출판과 졸업생들에 대한 출판계의 불신과 무관심은 교육내용때문이라기보다는 '전문대'라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2년과 4년이 라는 교육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출판사 인사책임자들은 "출판 실무는 입사 후에 길게 잡아도 6개월이면 익힐 수 있지만 에디터의 소양과 자질은 2년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출판과 지망생들이 진정으로 출판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성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학한 것이 아니라"는 선입견도 불신의 크기를 더한다.

출판과 교수들의 추천으로 졸업생을 편집부서에 채용해봤다는 허창성(평화출판사) 사장은 "개별적으로 출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 그다지 쓸모가 없었고 실력 있는 후배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끝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여럿 봤다"고 경험을 토로한다. 한 출판사 사장은 "출판과 교육이 출판계의 수요와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책임을 학계에 돌린다.

### 제작실기 교육에 주력하길

편집·기획분야의 높은 담장에 비해 출판과 출신들의 도전이 비교적 쉽고 실제로 진출한 사람도 많은 곳이 편집디자인이나 전

# “당신들은 바로 유엔군이군!”

장갑차나 로켓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혹 이런 말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저희들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스텔스 전폭기나 고성능 레이더 대신  
다년간의 편집 경험과 노하우로 중무장한 저희는  
쉬운 일보다는 까다롭고 급박한 일에  
더 이골이 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라도 곧 달려가  
육이오 때의 유엔군처럼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일러스트·김천정

### ▶ 사업내용

집 필 : 자서전·회고록·개인출판 및 문학·위인전 등  
윤 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 정 : 사전류·참고서류·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 집 : 백과사전·잡지·사보 등

### ▶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15-1453  
천리안·하이텔·SAMYEUN

자출판, 컴퓨터 그래픽 같은 제작 분야나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영업분야. 출판사 사장들 역시 “출판과들이 차라리 확실한 실기 중심 교육을 통해 이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다. 그것도 ‘책상머리 실기’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소용에 닿는 실기교육을 위해서는 학계가 끊임없이 출판계의 변화된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출판인들을 외부강사로 초빙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판전문인력 양성과 그 진로에 관한 출판인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출판과 아니라도 올 사람 많다”는 시장의 경제원리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나 “6~70년대 만해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한 원로출판인의 회한어린 회고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5만원의 장학금

까지 지급해가며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인쇄조합의 ‘인쇄학교’의 사례는 자칫 출판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를 일깨운다.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 높은 이직률은 출판계가 언제까지 인력수급과 관련해 안심할 수만은 없음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출판계 엘리트 양성이라는 목표로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강좌를 실시하다 폐쇄한 ‘출판대학’의 사례를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출판협회 김세연 차장(당시 출판대학 교무과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계 전체의 앞날과 발전을 염려하기보다는 개별 출판사의 안위에 연연하고, 직원들의 문제의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주기 보다는 이용하는 데만 급급한 경영자들의 인식과 출판계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출판교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 박남정 기자

### 나의 의견

## 인턴사원제 도입으로 과리감 극복하길

김학원·푸른숲 주간

우선 현재 대학의 출판학과에서 진행되는 교과 과정은 출판인이 지녀야 할 기초교육과 현장교육이 미진한 듯하다. 문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보다 폭넓은 지식의 보강과 현업에 종사하는 출판인들의 특강 설치 등을 통한 적절한 교류를 통해 출판인이 지녀야 할 것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취업을 앞둔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른 업계에서 이미 보편화된 인턴 사원제의 방식들이 도입되어 과리감을 극복해나갔으면 한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역시 학문적 영역의 노력뿐 아니라 현재의 출판업 발전을 위한 현장성 있는 연구가 아울러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천명에 달하는 출판학과와 고급 인력들이 진정한 의미의 고급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출판업계가 그들을 외면할 리 없을 것이다.

## 기능 앞서 ‘문화보는 눈’ 길러야

임종기 경희대 강사(출판편집론)  
국민서관 편집부장

출판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출판은 그 자체가 이 사회의 문화적 오브제가 될 수 없고, 다만 중요하달 수 있다면 모든 학문의 수단이 되는 도구적 기능 정도라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모든 미디어는 ‘설득’을 전제로 한다. 출판이라는 매체의 설득력 여하는 무엇보다 출판인—더 좁혀 말한다면 편집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기능적 요소가 기본적인지 만 폭넓은 인문주의에 대한 애정도 갖춰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구직난, 회사에서는 구인난. 이 격차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회사의 탓도 없진 않겠으나 우선 출판을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의 운영 방법부터 수정돼야 할 것이다. 출판과에서는 기능을 가르치는 것 못지 않게 ‘문화를 보는 눈’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